

‘소통 행정 선도’ 전남 4개 시·군, ‘올해의 SNS’ 우수

‘제10회 올해의 SNS 대상’ 여주시, 블로그 대상 등 2관왕 광양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완도·진도, 대상·최우수상

여수·광양·진도·완도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올해의 SNS 대상’은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상이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관광 채널 ‘힐링여수야’가 블로그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거머쥐었으며, 시 공식 채널인 ‘여수이야기’도 카카오페이 부문에서 잇달아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여수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여수이야기’로, 관광 분야를

‘힐링여수야’로 이원화해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거북선축제, 여수 국제 웹페스트, 여수밤바다불꽃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를 적기에 홍보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365개의 섬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며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구석구석에 숨겨진 여행지와 맛집, 야간관광 등 색다른 콘텐츠와 소통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으로 시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통·공감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다각도로 활용해 시기적절한 시정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달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 부문 대상과 시(市) 부문 최우수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소통행정 역량을 인정



여수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상’에서 영예의 2관왕에 등극했다. 여수시 제공

받고 있다.

광양시는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양시는 모든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광양시 SNS는 지역 캐릭터 ‘매들이’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최신 유행하는 릴스 패러디,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등은 공공기관 특유의 정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광양시는 앞서 ‘제9회 2023년 올해의

SNS’ 카카오톡스토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와 진도는 각각 올해의 유튜브상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는 유행하는 숏폼 및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군민이 군정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완도군 공식 SNS의 총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약 4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 4000명보다 6000명이 늘었다.

송민섭 기자

여수산단 내 사외배관 사고예방 여주시·중앙부서·지자체·민간 협약

여수시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지난 21일 여수산단 내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 정보를 공유하고 석유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최정기 여주시 부시장과 윤준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 송민철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장, 오영철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이 참석해 사전 서명한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세부 내용은 △여수시가 추진 중인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외배관 안전 체계 구축사업’ 간 자료 공유 △공사 사업의 기술·결과물·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 전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교육사업 공유 △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외배관 유·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해 평시에는 배관 부식, 파손 등과 같은 위험징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유사시에는 2차 피해확산 방지에 힘써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이 중앙부서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화학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외배관 안전진단 및 감시 시스템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현행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단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 개최 고흥군, 치매관리사업 효율적 추진

고흥군이 지난 21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반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치매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원활한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치매안심센터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고흥군청,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녹동현대병원,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노인복지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도 치매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2025년 치매관리사업 계획,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및 자문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사업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치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1-830-6969) 및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떡깨비’ 7000원 할인 이벤트 보성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성군은 연말을 맞아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떡깨비 앱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7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등록)으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전남도, 22개 시군, ㈜떡깨비가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 타기업 배달앱(6%~27%) 대비 저렴한 1.5%의 수수료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이용자는 각종 할인 혜택과 모바일 보성사랑상품권 10% 구매 할인 결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말 행사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연중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가 운영하는 어르신 소통 커뮤니티 ‘너나들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이 그림책 연극을 진행 중이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어르신 소통 프로그램 ‘너나들이’ 운영

순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간 돌봄 취약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이 만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소통 커뮤니티 ‘너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돌봄 취약 어르신과 지역 거주 어르신 총 12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총 6회) 조곡동 ‘어울림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인형극 공연, 고무신 아트, 그림책 이야기, 건강증진서비스, 이마용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건강·생활 3개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너나들이’는 독거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

련하고, 특히 프로그램 모두 지역의 재능 기부 강사가 참여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망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 참여자는 “다리가 아파 집에만 있었는데, 생활지원사와 함께 외출해서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체험·탐사

장흥남초교 3·4학년 참여

장흥군은 지난 21일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탐사 프로그램은 천연기념물 자연사 자원 공동 학습조사 일환으로 장흥군, 국가유산청,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참여했다.

탐사활동에 함께한 장흥남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은 생태 관찰 등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며 자연

에서의 생명 순환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참가 학생들은 1인당 4개 분류군을 탐사 체험 후 조별 발표와 조사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 탐사 프로그램은 지난 1년 여간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자연사 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습조사는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천연기념

물 동·식물 증식 보존 연구 일환으로 민간 협력으로 천연기념물 및 자연사 자원 발굴, 확보, 연구성과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독도 및 제주도 등 국내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장흥군이 선정되어 총 4차 조사 중에 있다.

공동학습조사 단장은 “자연사 자원은 단순한 연구자료를 넘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이번 학습조사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군에 백미 600kg 기탁 구례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3610지구 구례로타리클럽이 지난 22일에서 관내 복지 사각지대가 정을 위해 백미 600kg(60포·10kg)을 구례군에 기탁했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길용 부군수와 구례로타리클럽 양창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창식 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용 부군수는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구례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례로타리클럽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